

원불교와 청소년 심성교육

-청소년 '마음공부' 실천을 중심으로-

장 하 열

(원광보건대학)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심성교육을 원불교적 입장에서 어떻게 실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오늘날 청소년의 인성, 심성교육의 요청이 강해지고 있는바,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또 보편적으로 확산해갈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원불교에서 심성교육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마음공부'를 일원상 진리에 입각하여 제시하였다. 즉 원불교를 창교한 소태산 대종사의 교시를 근거로 하여 청소년들과 직접 실천한 경험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므로 일원상 진리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근본자리임을 전제하고 이러한 마음을 찾고 또 기르고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진리를 실천하는 인격을 갖추도록 까지 청소년의 심성을 교육하고 있는 실천현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불교의 신앙의 대상인 일원상 진리를 내 마음에 그대로 실천케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상 수행의 요법'을 각 청소년의 생활 현장과 직접 연결케 하고 있다. 그리하여 행동화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의 형태를 보면서 대조하여 직접 기록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논자는 이러한 방법을 초,중,고,대학 그리고 소년생 등과 실제적으로 경험한 바를 발췌하여 분석하면서 놀라운 효과가 있음을 체험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체험사례는 이미 서울시, 경상북도 등의 교육위원회에서 가장 우수작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확산 방법은 이미 검증된 청소년의 심성교육을 위해 부모나 교사나 청소년 지도자들이 앞서 '마음공부'를 통한 심성교육의 원리를 터득하여 청소년의 교육현장에서 다양하게 실천해 나가자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준비로써는 청소년 인성교육지도자 양성코스, 종교간의 인성교육 자료의 교류, 대

학교교육에서의 청소년 인성교육 교과과정 편성 그리고 정부의 청소년 담당 부처간의 협력체제와 지원 등을 제안하고 있다.

I. 머리말

오늘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은 인격의 향상이라는 방향에서 찾아야한다. 청소년의 인격 향상은 청소년 내면의 인성·심성의 바른 성장이 그 본질이라 할 것이다. 청소년 심성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적 역할로 가능하다. 그러나 청소년의 심성교육을 제도권 교육에만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종교들이 각기 나름대로 종교적 가르침으로 청소년 세대의 심성교육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여기에 오늘날 청소년에 대한 심성교육의 요청을 종교의 중요한 기능으로 담아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원불교의 청소년 심성교육을 조명하기로 한다. 본 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심성교육이 뜻하는 바를 원불교에서는 「마음공부」라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마음공부」 실천을 중심으로 청소년 심성교육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논자는 「마음공부」의 원불교 교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러한 교리적 근거를 통하여 형성된 「마음공부」의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원불교의 청소년 심성교육으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의 「마음공부」에 대한 실천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청소년 「마음공부」의 발전방안 및 과제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청소년들 자신이 지니고 있는 마음을 찾고 그 마음을 단련하고 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적 자료로 삼아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II. 『마음공부』의 원불교 교리적 근거

1. 일원상 진리와 『마음공부』

일원상 진리는 원불교의 교조 소태산 대종사(1891-1943)의 깨달음을 통하여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를 상징적으로 제시한 원불교 신앙과 수행의 대상이다.

소태산은 “일원상 진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제불제성의 심인(心印)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원불교 정전』 일원상의 진리: 23)이라고 설파하였다. 이러한 핵심 진리에 대한 표현에서 일원상 진리는 인간마음의 근본 성품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일원상 진리는 일체생령의 본성”이라고 제시한 내용이다. 즉 인간을 비롯해서 이 우주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의 본성이라고 보는 것이다.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다(『원불교정전』 일원상의 수행: 24). 이처럼 일원상 진리는 우주의 근원과 우리 인간의 성품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모든 인간은 무한대의 잠재력을 내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원상의 진리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무한계발할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불교의 『마음공부』 특징은 일원상 진리와 일치된 내 마음을 정기훈련(염불, 좌선,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리일기, 상시일기, 주의조행)과 상시훈련(『상시용용주의 사상』 6조,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6조)을 통하여 계속 단련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러한 훈련은 결국 일원상 법어정신과 일상수행의 요법등 교리를 실천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2. 일원상 법어와 『마음공부』

소태산은 일원상 진리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물의 본성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진리를 인간의 주체적인 활동으로 다양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그

것이 바로『일원상 법어』의 교시이다.

소태산은 일원상 진리의 사용을 멀리서 찾지 않고 인간의 육근(六根: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작용할 때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가르쳤다. 즉 “이 원상(圓相)은 육근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니라”(『원불교 정전』 일원상 법어: 25) 하고 인간의 육근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주시해야 할 것은 ‘마음’을 빼내버린 5관작용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5관 작용을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점이다. 예컨대 나의 손을 사용하여 누구를 구타 했다고 한다면 손이 상대방을 구타한 것인가? 남의 귀중한 물건을 훔쳤다고 한다면 내 발이 독자적으로 걸어가서 눈이 혼자보고 손이 스스로 가져온 것인가? 내 마음에서 이미 상대를 구타하도록 작용한 것이고, 물건을 훔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불교에서는 이 원상을 6근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써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다. 따라서 소태산은 사람에게 일원상 진리의 속성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며 어떠한 분별심과 주착심이 없는 마음이 주재하여 그 명한대로 바로 사용하도록 가르친 것이다.

3. 일상수행의 요법과 『마음공부』

소태산은 일원상 신앙과 수행을 구체적인 생활의 장에서 활용하도록 일상수행요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일상수행의 요법은 원불교 교리를 구체적으로 생활속에서 실천하도록 가르쳐 준 교시이다.

일상수행의 요법을 정산종사는 구성심(九省心) 조항이라고까지 표현하여 아홉가지 성품과 마음을 살피는 요긴한 길로 가르쳤다.(『정산종사 법어』 권도편: 30) 일상수행의 요법 9조는 다음과 같다.(『원불교 정전』 일상수행의 요법: 54)

- 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정을 세우자.
- ②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혜를 세우자.

- ③ 심지는 원래 그림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림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계를 세우자.
- ④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써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 ⑤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 ⑥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 ⑦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 ⑧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 ⑨ 공익심없는 사람을 공익심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위 조항은 모두 다 심성교육과 관련된 교리이다. 이중에서 1. 2. 3 조를 중심으로 핵심만 살펴보기로 하자.

1조와 2, 3조의 문장에서 살펴보면 “심지(心地)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 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自性)의 정(定)을 세우자”고 제시하였다.

이 교시에 나타나있는 심지는 마음의 바탕을 의미한다. 경계는 마음을 요란하게, 어리석게, 그르치게 하는 환경이나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자성은 인간의 성품, 본성 등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정(定)은 원래의 텅빈 마음을, 깨끗하고 맑은 마음 즉 분별심과 주착심이 없는 본래의 마음을 일컫는다.

인간은 누구나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림도 없는데 어떤 상황(탐내는 마음이 일어나고, 화내는 마음이 일어나는 환경)에 따라 있어진다. 그러므로 탐내고 화내는 마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림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분별도 없고 주착에 끌리지 않는 정(定)을 세워 그러한 모든 마음이 일어나기 전의 본 마음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원불교의 심성교육은 「마음공부」로 대표되는데, 마음공부를 위해서는 마음일기를 적용한 사례와, 「마음공부」 훈련프로그램 사례와,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하여 효과를 거두운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III. 청소년 「마음공부」의 실천사례

1. 『마음일기』 적용사례

1) 박 영훈 교사의 「마음일기」 적용사례

박 교사는 마음공부를 통한 청소년의 인성 교육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담임을 하거나 사회과목을 가르치면서도 수업내용과 지시 전달 만으로는 인성, 심성 교육이 너무 미흡함에 갈증을 느꼈다. 5년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동양 현인의 어록 중에서 학생들에게 인성과 심성이 드러날 수 있고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쉬운 내용을 골라내어 69개를 적었다”(박영훈 외, 1996: 10-11).

이 내용은 서울 천호중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고 있는 박 교사가 학생들에게 인성과 심성 교육을 「마음 공부」로 연결해서 실천하게 된 동기인 것이다(현재는 서울 성래중학교 교사임).

왜 박교사는 청소년의 심성교육의 본질을 원불교의 「마음 공부」에서 찾아야 했는가? 그는 마음의 위력과 마음의 성질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 세상의 만들어진 온갖 놀라운 것들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고, 모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마음」이고, 사람은 모두 마음이 있으니, 그것이 나의 원래 훌륭한 사람 됨의 근원이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박 교사는 마음의 성질은 “지극히 미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원불교 대중경』)는 소태산의 교시를 내면화하고 학생들에게 일상 수행의 요법을 가르쳤다. 또한 그것을 행복의 공식이라 제시하고 「마음 일기」라는 것과 접목시켜 구체화하고 있다. 즉 박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음일기를 쓰게하고 일기 감정을 해주고 있다. 몇편의 일기를 살펴보자

11월 15일 000

“학교가 끝나고 가게에 갔다. 가게를 가니 어머니가 시장을 가신다고 가게를 좀 보라고 하셨다.

나는 보기가 싫었지만 마음대조를 해서 가게를 보았다. 맨 처음에는 짜증이 났지만, 끝에는 기분이 좋았다.”

박 교사의 일기 감정 ; 마음을 살펴서 원래 마음을 쓰니까 홀통함이 나오는구나. 경계를 따라 일어난 마음(가게보기 싫은 마음)에 넘어지지 않고, 마음 대조하여 가게를 보고 끝에는 기분까지 좋았다니 이 얼마나 행복하고 위대한 일이나? 반갑다(박영훈 외, 1996: 24).

11월13일 000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T.V 를 보는데 어머니께서 햄을 사오라고 하셨다. 이제 곧 만화가 시작되는데 가기 싫다고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계속 사오라고 하셨다. 그래서 갔다오기로 했다. 갔다 오면서 마음 대조를 해 보았다. 그러니까 어머니께 가기 싫다고 말한 것은 잘 못한 것 같았다. 집에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박 교사의 일기감정 ; 마음대조를 하니깐 마음이 편안해 졌구나. 편안해 지니까 지혜가 밝아지고 올바른 행동이 우러나온다.

박 교사는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 심성을 마음일기를 통한 「마음공부」로 지도하고 있다. 또한 ①교사의 훈화정책과 문화활동, ② 모듬일기, ③ 교사상담공부, ④ 급훈활용 ⑤ 사교인사, ⑥ 학급동산, ⑦ 알뜰시장, ⑧ 학급문집, ⑨ 농구 잔치와 축구시합등을 함께 한다. 특히 박 교사는 마음을 잘 쓰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평소에 원래 홀통한 마음을 발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단전주(丹田住: 참선)를 시키면서 안정된 마음으로 돌아가 정(定)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2)김순이 교사의 「마음일기」 적용사례

김 교사는 서울 중곡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마음공부」를 시키기 위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자기 자녀만을 감싸고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인성 교육력이 약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물질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고 사람들은 너 나없이 생활의 편리함만을 추구한 채 물질에 얽매이는 생활로 전락해 버린 요즈음, 극도로 쇠약해진 정신을 통하여 인간의 홀통한 본성을 드러나게 해주고, 길러주고, 잘 사용하게 단련시켜주는 마음대

조 공부로써 바른생활을 창출하며 실천적인 인성변화로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 건설에 작으나마 한 몫을 담당하고자 하였다(박영훈 외, 1996: 87).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외우고 있는 일상수행의 요법을 입으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대조하고 또 대조하여 마음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질 때 원래의 마음으로 세우는 것이다. 무시선법에 명시된 것처럼 우리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두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가면 된다(『원불교 정전』, 무시선법: 72).

즉, 원래의 마음에서 일어난 마음을 보고 마음대조하고 다시 원래의 마음으로 세우는 것이다. 조그마한 일에도 미묘하게 움직이는 마음을 늘 살펴서 챙겨야 한다. 또한 일기법을 보면, 심신작용 처리건과 감각 감상을 기재하도록 하여 시비이해와 대소유무에 밝아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불교 정전』, 일기법: 70) 교당내왕시 주의 사항에서는 문답, 감정, 해오 얻기를 주의하도록 하였다(원불교 정전,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58).

이에, 그날 그날의 마음대조 사항을 일기로 기재하도록 하여 문답 감정을 해 주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게 되는 것이다. 김순이 선생은 「마음공부」를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만덕산에서 일원상 진리에 대한 훈련과 수계농원에서 정전 마음공부 훈련으로 다져진 공부를 그대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해 보았다”라고 술회하고 있다.

학생들이 제시한 『마음일기』의 사례를 살펴보자.

5월 21일 일요일 000

“돈 1,000원이 없어졌다. 먼저 자꾸 언니가 의심이 갔다. 하지만 마음을 돌렸다. 그래도 언니가 생각나 언니방에서 1,000원을 가져오려고 했다. 의심을 하면 안되지만 나는 가져 올려다가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어리석음은 없게 해야 한다는 마음에 내방에 가서 다시 찾아보았다. 조그만 지갑속에 있었다. 앞으로는 작은 일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잘 찾아야겠다.”

일기감정 : 마음대조를 하지 않고 가져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6월 8일 목요일 000

“오늘은 오랜만에 개를 데리고 산에 갔다. 지쳐 목이 마를 때를 대비하여 돈 500원을 챙겨 산으로 향하였다. 산을 가는데 개가 잘 따라와 줄을 놓아 주었다. 한참을 가던 중 개가 갑자기 오락실로 들어갔다. 마음이 요란해져 오락실에 들어 갔다. 그 때 마음대조를 하여 귀를 막고 개를 찾아 오락실을 나온 후 선생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서 목이 말라 500원, 즉 오락할 뻔한 돈으로 아주 시원한 음료수를 사먹었기 때문에 마음대조를 잘 했다고 생각했다. 오락실을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선생님께 고마운 생각이 자꾸 자꾸 들었다.”

감정 : 오락실에서 마음대조를 하여 나오다니! 기영이는 마음대조의 힘이 대단하구나.

국민학교에서 교사의 태도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런 점에서 학생들이 부딪치고 있는 문제의 소재를 근원적으로 찾아 주면서 감정해줄 때 실질적인 심성교육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교사는 초등학생들의 습관이 오락실 등에 빠지고 타인을 의심하며 서로 신뢰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마음의 일기로서 원래 마음을 대조하고 찾아서 잘 다듬어 가도록 가르치고 있다.

3) 박근영 교무의 「마음일기」 적용사례

원광고등학교에는 180여명의 학생들이 법회시간을 통하여 각자의 마음공부한 내용을 발표하며 교무의 감정을 받고 또 「마음일기」를 회보에 실어서 학교학생들이 「마음공부」로 인격이 향상되도록 하고 있다.

「마음공부」를 하게된 동기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 「마음공부」를 통해 실질적으로 심성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자기의 종교관을 가지되 종교가 자신에게 있어서 유익하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생활속에서 실천하도록 유도하며, 법당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마음대조를 통해 마음공부를 더욱 심화시켜 자부심을 가지고 학급이나 학교에 확산시켜 나가도록 한다.

실제로 법당에 오는 아이들 중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을 다니는 아이들도

있다. 그저 막연하게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삶에 충실해질 때 요즈음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소년 문제의 해결방안도 있다는 것을 느낀다.

다음 사례는 마음대조 일기 한편과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의 글 한편을 소개한다.

<사례 1>

원고 1년 강명수

“어제의 일이었다. 저녁 늦게 학교에서 특별 보충수업을 받고 있는데 잠이 너무 오는 것이었다. 끝종이 울리자 바로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그런데 누가 등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귀찮아서 모른체하고 잤다. 그런데 이내 와서 뒤통수를 치는 것이었다. 나는 화를 내고 싶었다. 하지만 잠이 덜 깬 나머지 화내는 것도 귀찮아서 다시 자고 있는데 그 사이 다시 건드리는 것이었다. 이제는 잠이 깨어버렸다. 그래서 화를 내려는 순간 아! 내가 경계를 지나치고 있구나 그날 한 번 참고 내이름을 불렀을 때 대답해 줄걸 ……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 친구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다음번에 마음대조 공부를 바로 바로 활용해서 실생활에 꼭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일기감정 : 그 친구와 화를 내서 끝까지 가지 않고 화를 내려는 순간 바로 마음대조를 하였구나. 그리고 그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했다니 마음이 편안해졌겠구나(원광고 법당회보 참조).

<사례 2>

원광고 2년 이정현

“나는 이곳에서 많은 선배님들을 알게 되었고, 우정있는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다. 그리고 비뚤어진 내 마음을 살피서 바로 참을 수 있는 마음공부도 하게 되었다. 정말이지 지난 1학년때의 내마음은 이기심으로 꽉 차 있었다. 언행도 되는대로 하여 험한 말을 쉽게 하였는데 지금은 행동과 언행에서 많은 변화가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법당에 있는 물건이나 공중물건, 그리고 내 수용품까지도 소중히 다룬다.

줄 아는 주인정신도 생겼다.

이는 법당에 드나들며 마음공부한 덕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남을 조금이나마 위해주고 격려할 줄 아는 마음도 생겼다.”

일기감정 : 늘 경계마다 마음 대조한 결과 공익심과 자비심이 생겨나는구나! 참고맙구나

이정현 학생은 원래 천주교를 다니고 있다. 그러나 마음공부를 중심으로 계속하니 마음공부 따라 자신의 변화를 알게 된다(원광고 법당회보 참조).

4) 장연광 교무의 마음공부에 의한 심성교육 사례

본 연구자는 원광보건대학에서 학생의 교육과 교화를 담당하고 있다. 본인이 맡고 있는 『종교와 원불교』라는 과목의 핵심은 대학생 청소년에 대한 심성교육으로 그들의 인격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주제인 마음공부를 통한 청소년의 심성교육은 이념의 실천화 작업이며 실천의 이론화 작업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 대하여 마음공부의 원리를 적용했고 또 효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본 연구자는 수업에 임한 학생들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들을 말하도록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도 돌아가면서 말하도록 하였다. 고통발표의 시간에 누구나 많은 고통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의 원인이 각자의 마음에 있다는 것도 서로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공통되는 고통의 원인은 탐심[욕심]과 진심[화냄]과 치심[어리석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 마음에 본래 아무것도 없는 마음 그 ‘참마음’ 찾기를 위한 선을 시키기도 하고 원래의 마음을 찾고 그 마음을 양성하고 사용하도록 지도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상수행의 요법 1,2,3조를 중심으로 자신의 생활과 생활상의 마음과 대조하여 그 마음의 흐름을 일기 형태로 적게하여 학과 학생의 전체 앞에서 발표하도록 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몇 편의 마음일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전자계산과 김석진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어렸을 땐 잘 몰랐다. 그러나 커가며 느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원망감 이라고나 할까? 왜 날 낳았을까? 아니면 왜 날 나오시고 돌아 가셨을까? 차라리 날 낳지나 않았다면 좋았을걸 …… 등등의 괴로움, 원망감, 좌절감 등이 마음에 요동친다. 이럴 때면 정말 살기 싫고 세상에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모두가 싫어진다.

그러나 이런 마음속의 어지러운 감정들을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할머니를 통해 잊어 보려고 노력한다.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는 나를 할머니 혼자서 키우셨다.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키우셨을까? 생각해 본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며 자라기를 바라진 않으셨을 것이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되기를 바랬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속의 어지러운 감정들이 차차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마음의 일기를 들은 후 학생들은 숙연한 분위기였다. 또 김석진 학생의 마음과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그 학생이 마음속의 어지러운 감정들을 정리했다는 이야기에 서로가 기쁨을 나누는 분위기였다.

여기에서 청소년들의 괴로움 좌절감 원망감의 정서가 깊이 뿌리를 내리면 심성에 상처를 입고 치유하기가 곤란한 상황으로 빠져 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공부’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찾고 그 마음의 흐름을 보면서 본래의 마음에 이탈되지 않는 마음으로 작용해 가면 원망도 어지러움도 미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위의 학생의 경우가 바로 그 예이다 즉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많은 부정적 정서가 소멸되면서 할머니의 사랑의 모습과 하나되어 마음의 평정을 가져올 수 있듯이 말이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강의 시간에 ‘마음공부’의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간호과 유남순

“나는 학과 총무를 맡고 있다. 그래서 학과의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주일 전에는 학과 학생들이 필요한 자료를 내가 복사하여 공급하였다. 그런데 복사 집에서 8만원 값의 복사를 하고 영수증에도 8만원을 기입하고 실질적으

로는 7만5천원 밖에 받지를 않는 것이다. 나는 순간 내가 5천원은 내가 가져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 자료를 학과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는 아무 말도 없이 내려오려다가 갑자기 내 마음을 자극하는 「마음공부」의 가르침이 있었다. ‘심지는 원래 그림이 없건마는 경계에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림을 없게 함으로써 자성의 계를 세우자’는 「마음공부」의 강의 시간이 생각나서 아 이때가 바로 ‘경계’로구나, 내 마음에 욕심내게 하는 경계가 왔구나 생각하고 학생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 “여러분 이 자료는 본래 가격보다 싸게 했으며, 영수증에는 원 가격이 적혀 있으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내가 가지려고 했던 5천원의 공금을 포기해 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고 기쁜지 몰랐다. 이때 얻은 보람은 그 5천원 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얻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위와 같은 마음공부의 일기내용을 간호와 학생 모두가 듣고는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도 실천해 낸 학과의 동료들 보고 신뢰하는 분위기가 역역 하였다.

얼마든지 자기가 가져도 아무도 모르는 돈을 본래 마음에 비추어 욕심을 차단하는 실천을 한 것이다. 그 욕심을 차단하는 참 마음이 우리 청소년들이 길러가야 할 심성인 것이다. 연구자는 그러한 마음을 내게 하는 교육과 훈련이 있었기에 가능하리라는 확신을 체험으로 얻어내게 되었고 이러한 방법으로 마음공부를 통한 심성교육을 확산시켜 갈 수 있다고 본다.

2. 청소년 『마음공부』 훈련 프로그램

1) 뒷뜰 야영대회와 청소년 『마음공부』

이병호 교사는 심성교육을 위해 뒷뜰 야영을 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문명의 지나친 발달과는 대조적으로 정신 문화는 걸음마를 하거나 퇴보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핵가족화는 금전 만능주의가 만들어 낸 것은 예의와 염치가 없는 어린이요, 아깁 줄 모르는 어린이요, 참을성 없는 어린이요, 남을 원망하는 어린이로 변해가고 있음이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자주 듣고 보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인은 먼저 우리의 뿌리를 찾게 하고, 우리의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을 찾아보게 하여 ‘우리 것의 소중함’을 맛보게 하고 ‘예의 정신’을 함양시키고자 지난 여름방학을 이용해 영천시 화산면 대거리에 위치한 본인의 집에서(제1회 어린이 새 삶 훈련) 뒷뜰 야영으로 실시하였다”(박영훈외, 1996: 125).

이 교사는 훈련 시작 전에 ‘세우자, 돌리자, 바꾸자’라는 구호를 선창하고 실시하였다. 이 구호는 위에서 제시한 일상수행의 요법 1조 2조 3조의 실천성을 강조한 용어이다. 그리고 훈련을 하는 중 다음 구호를 외치게 하였는바 이 내용은 청소년의 심성교육을 위한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

“땅에 떨어진 도덕과 양심을 바로 세우고, 남을 탓하는 원망심을 감사심으로 돌리고, 빼돌려진 우리의 습관을 바꾼다.” 또한 이 구호는 원불교 교전의 일상수행요법에서 제시한 실천적 용어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마음공부와 관련된 프로그램

이 선생은 ‘뒷뜰 야영을 통한 바른 인성기르기’에서 적용한 실제적인 과정으로

(1) 훈련 시작식 (2) 하나되기 (3) 마음열기 (4) 모든친구 알기 (5) 나를 찾기 (6) 게임 (7) 공동체 훈련 (8) 내가 살아온 길 (9) 모두를 알아가기 (10) 돌아보는 시간 (11) 머슴(진행자)회의 (12) 청소 (13) 선요가 (14) 서로 얼굴 씻어주기 (15) 자연을 찾아서 (16) 다도 (17) 국악 (18) 촌수알기 (19) 모닥불놀이 (20) 촛불과 함께 (21) 마음일기 쓰기 (22) 우리 농산물 깎기, 연필깎기 등을 적용하여 훈련시켰다(박영훈외, 1996: 135-142). 청소년들이 처음 대해보는 야영이었다. 심성개발과 관련해서는 마음열기, 나를 찾기, 선 요가, 마음일기 쓰기 등이 주목된다.

즉, 학교의 교육 속에서 이루어내지 못한 부분을 야영대회를 갖고 22종류의 프로그램을 전개하는데 그 초점은 『마음공부』에 두고 있다.

2) 중도훈련원에서의 청소년 『마음공부』

원불교 중도훈련원을 원불교 교역자를 대상으로 훈련하는 곳이다. 이 곳에서는 원광중학교 1학년 311명을 대상으로 1997년 4월21-23일(2박3일)에 훈련을 실시하였다. 주제는 “나를 알고 우리를 느끼고 자연을 배운다”라고 제시 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① 마음모아, 소리모아, 시작의 시간 ② 단모임으로 우리는 하

나(소그룹모임) ③ “마음대조”라 하여 행복의 공식으로 별칭하여 『마음공부』를 시키고 ④ 우리들의 멋과 흥 이라는 자신들의 시간을 갖고 저녁시간에는 마음공부를 대조하는 일기를 쓰도록 했다. ⑤ 쇠술골의 밤을 만들어 캠프파이어와 함께 어울리는 마당을 만든 후 ⑥ 슬기로운 삶을 위하여 ⑦ 나! 우리! 자연속으로 라는 프로그램과 ⑧ 크게 하나되어로 크라이막스를 장식하고 ⑨ 훈련마치는 소감을 적은후 ⑩ 헤어짐의 시간을 가졌다(중도훈련원 훈련평가자료, 1997).

훈련원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훈련원에 와서 알고 느끼고 배운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 첫째, 「마음공부」와 「마음대조」로 경계(境界)가 무엇인지를 배웠다는 설문이 90%이상이었다.

둘째, 서로간에 협동하면 빨리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적고있다.

셋째, 예절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자기자신을 알게 되었고 우리와 자연도 서로 관계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3) 학생들이 학교에 건의한 내용에서는

① 선생님 아이들을 때리지 마십시오. ② 반별로 담임 선생님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③ 학교생활에 힘든점, 공부, 고민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면 풀릴 것 같다. ④ 선생님들 욕설을 줄이셨으면 좋겠다(중도훈련원 훈련평가자료, 1997)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건의는 학생들이 얼마나 교사와의 관계가 비교육적인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있게 한다. 그러면 몇 사람의 「마음공부」 일기를 보기로 한다.

4) 학생들의 마음공부 일기

*원광중학교 8단 정태언

“우리 원광중학교 학생들은 학교 근처의 중도훈련원이라는 곳으로 수련을 갔다. 이 곳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일상수행의 요법이 기억에 남는다.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닦는 법이다. 구체적으로 하자면 마음은 원래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은데 때에 따라 이것이 변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소

년원생들의 마음대조 일기를 읽어 주셨다. 이 일기를 들어보니 뭔가 마음에 크게 와 닿았다. 이 시간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데 내 마음의 경계를 시험하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나와 함께 같이 농구를 하는 아이로 다른 편이었다. 이 아이는 내가 반칙도 하지 않았는데 반칙을 했다고 우겼고 계속 시비를 걸었다. 난 이때 아까 배운 마음의 경계를 생각하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시비를 걸지 않았고 끝나고서는 미안하다고 했다. 그 때 경계를 생각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때 경계를 생각하지 않고 싸웠다면 난 이 즐거운 수련을 나쁘게 보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계의 범위를 깨달았다.”

감정 - ① 시비를 걸어오는 순간 이것이 경계구나라고 머리에 떠올린 것은 참으로 대조공부를 잘한 것입니다.

②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들은 척도 아니할 때 마음속은 어땠죠? 조금 화가 났죠. 원래 요란함도 없는 내 마음에 화가 날수도 있는 것이 마음의 원리입니다. 무조건 참지만 말고 그 순간에 마음대조 공식을 외어보세요(중도훈련원 『훈련자료』 참조).

* 원광중학교 1단 박민규

“오늘 점심을 먹고 훈련을 했다. 그 훈련은 단끼리 단합하여 정해진 코스를 돌아오는 것 이였다.

우리가 1단이어서 맨 먼저 출발하였다. 가는 길을 지나와서 아저씨들에게 물어 보고해서 1코스 만 남아 있었다. 너무 힘들어서 쉬고 있다가 나와 몇명 친구들은 포기하고 훈련원으로 그냥가고 몇명의 친구들은 끝까지 갔다 왔다고 한다. 만약에 내가 경계를 느끼고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몸은 힘들었겠지만 마음은 편했을 것이다.”

감정 - 마음의 경계는 그 일에 당하는 상황에서 원래의 마음을 찾아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실천해야 합니다. 나중이라도 그렇게 했더라면 마음이 편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공부가 된 것이죠(중도훈련원 훈련자료참조).

학생들은 2박3일간의 훈련으로 자신의 마음을 알고 그러한 마음을 잘 사용하도록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러한 「마음공부」에 바탕해서 다른 일을 한다면 청소년의 인격은 날로 향상되리라 본다.

3. 특수 영역에서의 청소년 『마음공부』

1) 제주 소년원생의 『마음공부』

제주도에서는 한길 중학교라는 명칭의 소년원이 있다. 이들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참선학교(참선을 통한 마음공부)를 개설하여 효과를 거두어 낸 사례가 있다.

제주 소년원에서는 80여명의 원생이 살고 있다. 이 곳의 채왕석 원장은 제주 국제훈련원에서 참선학교를 한다가에 소년원 직원 10여명이 먼저 참선 훈련에 참여한 것이다(전 채왕석 원장의 말). 그 후 이들은 진실로 참선학교에서 마음공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 것이다. 자신감을 갖고 소년원생 전원을 참선학교에 참여 시키어 훈련을 받게 한 것이다. 참선학교의 프로그램 내용은 단별모임, 108배, 마음공부 일기작성, 양노원 방문, 재미있는 놀이 등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면 이 제시한 「마음공부」 일기 몇 편을 살펴보기로 하자.

제주 소년원생의 『마음일기』

“(장경호) 내가 이 번 참선 학교를 통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참선을 해야할지 잘 몰랐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원생과 한 3일 동안 협동심도 늘고, 여러 교무님과 선생님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참선학교를 하면서 내 마음도 맑아지고 인내심도 늘었습니다. 다시 한번 참선학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도교무의 일기 감정 : 마음도 맑아지고 또 협동심이 생겼다니 심성이 좋은 쪽으로 성장한 겁니다. 사람은 혼자 존재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한다는 걸 알겠지요 (제주국제훈련원, 1997 :30).

“(임두일) 나는 이번 참선학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하기 싫고 짜증이 났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흥미를 느끼고 참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선을 하면서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2박 3일간 저희들을 지도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도교무의 일기 감정 ; 참선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니 잘했군요. 악한 마음을 버

리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은 그 마음이 그 정도로 열린 것입니다(제주국제훈련원, 1997: 31).

“(임영남) 이번 참선학교를 통해 나는 참선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선(禪)을 하게되면 정신이 맑아지며, 마음이 맑아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제야 나는 모든 나쁜 것들을 말끔히 씻어 버리게 되었고, 올바른 길을 걷게 되었다. 참선학교를 해주신 교무님과 선생님께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

지도교무의 일기 감정 : 선을 하면서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졌다니 기쁘 답니다. 올바른 길을 걷게 된 마음, 참 장합니다(제주국제훈련원, 1997: 28).

이와 같이 소년원생에게 참선을 주축으로 한 마음공부의 결과가 일기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소년원내의 폭력이 없어지고 전국 15개 소년원에서 총 15명이 대학입학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10명은 제주 소년원 출신이다. 어떤 방법으로 지도했기에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나왔는가? 라는 질문에 “종전의 명상과 반성일기를 참선과 마음일기로 전환하여 효과를 보게 되었다”고 술회한다. 그러한 효과를 전 소년원 원장 채왕석과 현재 김숙영원장은 법무부 소년원 담당자들에게 「마음학교」를 전국 소년원생들에게 전하여 효과적인 심성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경험담을 전하고 법무부 당국자에게도 건의했다고 한다.

2) 영산 성지고등학교의 청소년 「마음공부」

영산성지 고등학교는 11년 전에 세워진 인성, 심성교육을 실천한 현대판 한국의 섬머힐 학교이다. 이 학교의 학생 수는 각 학년별로 20명 정도 모두 모두 60명 안팎이다. 교사 수는 15인 정도이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거의가 정규 고등학교에서 퇴학, 자퇴, 집이 싫어서 가출하는 등 소위 문제의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난날의 허물은 다시 묻지 않고 그들이 잠깐의 실수로 아닌 길을 걸어갔던 것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교육의 취지에 잘 나타나 있다.

(1) 영산 성지고의 교육목표

- ① 자주적 판단아래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자주적

인간이 되게 한다.

- ②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실현하는 창조적 인간이 되게 한다.
- ③ 공동생활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혜를 터득하는 도덕적 인간이 되게 한다.
- ④ 심신을 단련하여 굳센 체력을 지닌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한다.
- ⑤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한 직접 간접의 도움에 대하여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건전한 시민이 되게 한다.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은 우리학교 교사들의 불변의 신념이다(영산성지고등학교, 1997: 4).

(2) 학교교육의 특징

- ①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의 운영 ② 인성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③ 소규모의 학급 ④ 전원 기숙사 생활(가정을 대신) ⑤ 상시 상담체제
- ⑥ 전체회의를 통한 의사결정 ⑦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는 환경교육
- ⑧ 세계화를 지향하는 전통교육의 활성화 ⑨ 수업부담의 최소화
- ⑩ 학생체벌 금지 ⑪ 다양한 현장학습의 기회제공
- ⑫ 능력별 이동식 수업 운영(영산 성지고등학교, 1997: 5-7)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각

“애들아!

너희들은 이제 졸업하면 여기서 했던 방황, 고민 등에서 훨훨 털고 일어나 새로운 시작, 안정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다만 너희들을 떠나보내는 입장에서 꼭 한가지만 당부할 해 두마.

너희 가슴에 꼭 심어주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졸업장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적당히 타협하는 적응(?)도 아니란다. 너희가 정말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소중하고도 깊은 자각’임을 명심해라”(영산 성지고등학교, 1997: 45).

이러한 교사가 생각하는 교육적 태도에서 영산 성지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교육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 교사는 이렇게 시에서 적고 있다.

“성지의 등지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랑과 인내와 용서가 이 캄캄한 세상의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된다면 나는 감사의 눈물 흘리리라. 기쁨의 눈물 흘리리라. 상처받았던 영혼 치유 받으리라(영산 성지고등학교, 1997: 78).”

교사는 소외받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관심으로 늘 함께하며 지난날의 명든 마음을 치료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눈에 비춰진 교사(박주호 선생님)

평상시엔 선생님이라는 이미지보다 학교일을 도와주시는 아저씨 같이 보이지만, 수업시간 만큼은 확실하고 훌륭한 선생님이로 이미지 변신하신다. 그리고 수업시간에는 학생들과의 의견충돌로 다투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속마음은 절대 그런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들의 표정만 봐도 어떤 일이 있는지 ‘금방 알아차리시고 상담을 해주고 고민을 해결하여 주시려고 무척 애를 쓰신다. 그런 선생님을 볼 때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죄송스러울 뿐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하시는 우리 담임선생님을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할 것 같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세요!!!! <글 : 2학년 김시현> (영산성지고등학교, 1997: 48)

이처럼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들에게 다가서서 고민을 해결해주고 자신들의 마음을 잘 이해 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주는 교사를 좋아한다. 이러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에서 학생 인격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IV. 청소년 「마음공부」의 발전 및 과제

1. 학교를 통해서

1) 교사들에게는 담임의 역할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심

성변화를 「마음공부」와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적 과제다. 또한 학교의 CA, 동아리 활동 속에서 청소년 심성교육을 적용하는 것이 과제라고 본다. 원광중, 최재석 교사는 (사) 삼동청소년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경종선, 자연물 감상선, 촛불선 등을 단전주선과 연결시키므로써 마음공부를 함께한 체험담을 제시하고 있다(중도훈련원, 1997).

2) 학교 운영 책임자의 입장에서 년중 2-3회 청소년 훈련원에서 훈련을 통한 심성교육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한다.

초, 중, 고등학교 특별 활동시간에도 단전주와 요가반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원래의 마음을 찾아 유지하도록 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실시할 수 있다(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전주 중앙여고 외 30여 개교에 달함).

3) 정부 교육부의 교육개혁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봉사활동, 수련활동 등과 중생부를 청소년 심성교육과 잘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초,중,고에서는 준거집단으로 동아리를 운영하여 수련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바 정기적인 봉사·훈련기간을 정하고 심성개발과 관련하여 마음공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현재 (사) 삼동청소년회가 조직된 학교는 50개교에 달함)이 있겠다.

2. 가정에서

1) 부모자녀간 대화의 통로로써 「마음공부」로 부모 자녀간 일기, 교류시간이 필요하다. 부모 자녀간의 수직적, 명령하달식 대화에서 일방적인 훈화형태의 대화가 갖는 비효과적인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마음공부」 일기를 통하여 부모와 자녀간에 대화한다면 종전의 부모와 자녀간의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이동되면서 청소년 자녀의 심성과 인격이 몰라보게 성장된다.

2)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둔 부모들의 교육관 및 자녀관이 변해야하고 또 심성교육이 우선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식교육, 입시중심의 교육으로 편중되고 있는 사고방식을 부모교육을 통해서 전환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3. 사회단체에서

1) 청소년 단체의 활동 프로그램에서 「마음공부」 심성단련 프로그램을 의무조항으로 삽입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청소년이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의 바탕에서 다양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2) 심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대안학교의 확산이 요구된다. 해마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7만명 이상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안학교 설립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교는 재정적 투자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심성교육이 중시되어야 하고 청소년의 심성교육을 위해 교사들의 심성이 먼저 깨어나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V. 맺는 말

인간은 누구에게나 「마음」이 있다. 마음이 빠풀어지면 모든 행동은 바르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해결의 요체는 바로 그들 마음인 심성의 올바른 성장이라 하겠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심성교육은 종교적 책무로 받아들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각 종교의 새로운 실천이 요구된다. 청소년들을 신자수 늘리기 위한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진정한 심성교육을 등한히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청소년이 심성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논자는 원불교의 「마음공부」를 통한 심성교육의 가능성을 여러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제는 누가 이러한 소중한 교육을 맡아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기로 하자.

1) 원불교 입장에서는 청소년의 심성교육을 「마음공부」라는 측면에서 실천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를 확산하고 일반화하는데 필요한 청소년지도자 육성교육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2)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종교간, 교육기관간에 관련자료를 교환하고 지도자

육성등을 위한 협력체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 과업이라고 본다.

3) 대학교육에서 교사나 청소년 지도자를 육성시키기 위해 교과과정에서도 심성 교육 관련과목의 보완이 필요하다.

4) 정부기관(교육부, 문체부)은 청소년 심성교육에 대한 비중 있는 연구 및 현장 적용 실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5) 외국의 청소년 심성교육 사례도 필요한 분야는 수용하여 한국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6) 학교별로 부모의 「마음공부」훈련을 정예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원불교 교전』(1980). 이리: 원불교 출판사.

『원불교 대종경』(1980). 원불교 출판사.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집』(1981). 이리: 원불교 출판사.

원불교 대산상사 법문집(1988). 이리: 원불교출판사.

원불교 좌산 종법사법문(1996).

원불교 제주 국제훈련원(1997). 마음공부. 도서출판사 솜리.

원불교 교사회(1994). 도의 교육과 원불교 교사회. 선명문화사.

『원광』 263호(1996).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리: 원불교 출판사.

영산성지 고등학교(1997). 영산, 10호.

원불교 삼동원 훈련자료(1995).

(사) 삼동청소년회(1993).나·우리·자연. 이리: 원불교 출판사.

원불교 중도훈련원(1997). 훈련평가서.

체·계·음, 김성관(역)(1995). 음심리학과 동양종교. 서울: 일조각.

박영훈외 (공저)(1996). 선생님 학교가 참 재미있어요. 이리: 원불교 출판사.

장하열(1990). 청소년 교화의 이론과 실제. 이리: 원불교 출판사.

장하열(1980). 원불교 비행청소년 교화의 연구. 정신개벽 7·8집. 이리: 원불교출판사.

장하열(1996). 1996 종교지도자세미나. 청소년비행과 종교의 역할. 문화체육부 한국종교인 평화협의회.

장하열외(공저)(1998). 청소년 교화론. 선명문화사.

장하열(1996).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원광, 263호. 이리: 원불교 출판사.

장하열(1997). 청소년들이여 마음의 뻘뻘을 쳐라. 이리: 원불교출판사.

장명선(1997). 하늘사람 마음일기. 도서출판 솜리.

천윤택(1996). 살아있는 내 마음 그것 참묘하네. 도서출판 솜리.